

-SDGs 지역사회 이행 및 국제사회 공조 방안-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 에코로드 대표 곽지은

올해 2023년은 SDGs 이행 달성도 점검의 중간 지점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COVID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행 달성도는 정체를 넘어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더욱 짧지 않은 시간이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SDGs의 성공적 이행 및 이를 위한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오늘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SDGs 지역사회 이행과 국제사회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은 다양한 전공, 관심사, 가치관, 성장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다양성의 장입니다. 동아리와 같은 학생단체는 이러한 다양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 에코로드는 현재 수도권 10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나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도 하며, 다양한 지역을 활동 배경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학의 학생이 모인 연합동아리라는 점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있는데, 시간과 비용의 구매 없이 이용 가능한 모임 공간이 없다는 것, 이로 인해 특정 회원은 이동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청년 공간을 무료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청년 단체의 다양한 수요에 비해 그 수와 운영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많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비 대여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생은 주로 활동하는 학교 소재 지역과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용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날의 입시 경쟁 과열화로 인한 대학 서열화입니다. 여러 대학교의 학생이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의 학교를 묻거나 밝히는 것이 어느 정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 에코로드에서는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국적, 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며 이에 관련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윤리 강령을 갖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소속 대학을 밝히지 않고, 나이에 관계없이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생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하며 교류하기 위해서 소속 대학교 및 학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세계시민교육이 각 대학에서 필수교양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 학교마다 환경 관련 학과나 교과목 개설 수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경 관련 학과가 없는 학교에서는 환경 관련 교과목이 하나도 없

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이정표인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개념 또한 생소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외국어, 소프트웨어, 사회봉사 등의 과목에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이 필수교양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내 편의시설 또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립된 지 오래된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일체형 책상으로 가득찬 정형화된 강의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지어진 건물 구조를 변경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내 식당에서 메뉴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저희 에코로드에서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동물권의 측면에서 비거니즘을 조명하며 각 대학교의 비건 식단 접근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극히 일부의 대학만이 비건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고, 채식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학교도 많았습니다. 할랄과 같은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한 메뉴 또한 부재했습니다. 이처럼 교내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다양성의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각 대학에 존재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학생들이 글로벌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끼리 협력하여 각 학교의 학생들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마련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비용과 시간의 구매 없이 글로벌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학교가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에 널리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